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뉴스레터

No. 44 2019년 1월호

목차

- I 국제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을 홍보했습니다 (보고)1
- II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소식 (연재 19)
유엔 해비타트의 최근 활동3

I 국제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을 홍보했습니다 (보고)

2018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 가토비체에서 유엔 기후변동협약 제 24 회 당사국 총회 (COP24) 가 열렸습니다. 후쿠오카시는 2018년 12월 14일에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JICA) 와 일반사단법인 해외환경협력센터 (OECC) 가 공동 개최한 사이드 이벤트 『성장하는 동남아시아를 위한 다이얼로그 시리즈 (제3회차) ~파리 협정의 본격적인 실시 준비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에 참석했습니다.



COP24 회장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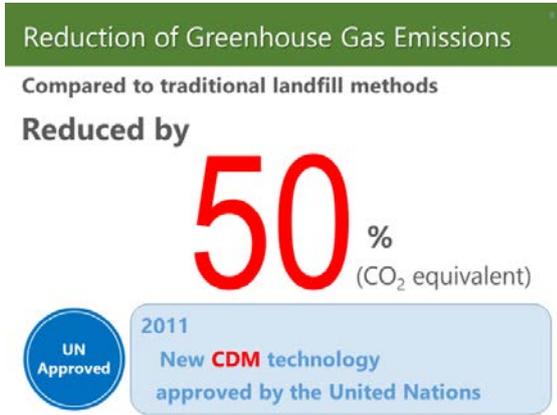
후쿠오카시는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책과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이벤트에서는 태국 온실효과가스 관리기구 (TGO) 와 JICA , OECC 의 대표자가 각각 방콕도와 호치민시에서 실시한 기후변동대책을 소개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기후변동에 대한 후쿠오카시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폐기물 준호기성 매립기술인 「후쿠오카 방식」, 한정된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위한 「절수형 도시 만들기」, SDGs 추진을 위한 도시간 연계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후쿠오카 방식은 메탄 가스를 비롯한 온실효과가스 삭감 효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종래 매립방식의 50%에 달하며, 2011년에 유엔으로부터 「크린 개발 메카니즘」수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후쿠오카시는 지금까지 후쿠오카 대학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을 중심으로 해외 15 개국을 대상으로 연수생 유치나 기술자 파견을 실시해 왔으며, 매립장 개선 등 국제적인 환경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두 번 대가뭄을 경험했던 후쿠오카시는 「절수형 도시 만들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배수조정 · 누수방지」, 「시민교육 · 절수」, 「재생수 이용」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후쿠오카시의 기후변동 대응책 (기후변동의 영향에 대처하여 피해를 회피 · 경감하려는 것) 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실효과가스 삭감효과가 종래 매립방식의 50%에 달하는 후쿠오카 방식



물의 유효한 이용을 통해 댐 두 개에 해당하는 절수를 실현

발표 후 강연자들은 패널 토론을 통해 기후변동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함께, 대응방안에 관해 도시간이 서로 배워야 할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제 12 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 분과회에서 의장을 맡았던 OECC 는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를 다 른 포럼과 비교해 보면, 회의 진행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수장들이 각 도시의 성공담과 실패담 을 그 자리에서 발표한 뒤,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단히 독특하면서도 우수한 실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장들은 배운 내용을 각자의 도시에 가지고 돌아가서, 톱다운식 형식으로 사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기후변동은 도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 리더들은 기후변동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비롯해 도시문제에도 솔선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는 앞으 로도 도시의 선진적인 사례와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 나가며, 또한 SDGs 의 추진과 실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도시들의 노력과 국제적인 도시간의 연계의 의의와 실질적인 효과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입니다.



강연자에 의한 패널 토론



제 12 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미트에 관한 보고와 2020 년 서미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II 유엔 해비타트의 최근 활동

2018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9회 환경기술전문가 국제회의와 제12회 아시아도시 저널리스트 회의가 동시 개최되었습니다.

1 제9회 환경기술전문가 국제회의 (EGM: Environmental Technology Expert Group Meeting) (11월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는 200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GM을 개최해 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근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많은 도시들의 인프라와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지만, 동시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환경 문제가 가속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2015년에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성장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을 정했습니다.

9 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2부로 나누어져, 1일차에는 아시아 도시의 폐기물 관리, 2일차에는 SDGs를 주제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째날의 폐기물 관리에서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보급되고 있는 「후쿠오카 방식」이라는 폐기물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의 효과와 과제가 소개되었습니다. 둘째날은 SDGs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치단체와 기업의 대응책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SDGs를 통한 연계와 협력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선진 사례의 소개와 더불어, 참가자들이 토론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레사와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장이 개최인사



마쓰후지 후쿠오카 명예교수가 「후쿠오카 방식」을 설명(1일차)



SDG 파트너즈 타세 씨의 강연 (2일차)



후쿠오카시의 시책을 설명하고 있는 시청의 요시야스 과장



또한, 1 일차 오후에는 해외 회의 참가자들이 실제로 후쿠오카시권 소각장과 후쿠오카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매립처분장을 견학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쓰레기 처분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청결했으며, 관리가 꼼꼼히 잘 되어 있었다. 후쿠오카시도 이전에 쓰레기 처분에 고심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정비가 된 것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겠다”라고 언급 했습니다.



「후쿠오카 방식」처분장 (그린힐 마도카)



단체 사진

2 제 12 회 아시아도시 저널리스트 회의 (ACJC: Asian City Journalist Conference) (11 월 28 일 오후)

제 12 회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폐기물처리와 SDGs 의 현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을 포함한 7 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네팔, 한국[알파벳순]) 에서 저널리스트를 초빙하였습니다. 라오스와 네팔로부터 기자를 초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먼저 각국 기자들이 각 나라의 폐기물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가졌습니다. 각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안고 있는 문제는 그 나라의 발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자세에서는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자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해 생각할 때, 확장과 성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축소와 재생도 함께 생각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쓰레기 분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을 침투시키는 것이 어려워, 구별이 모호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청소 일을 담당하는 것은 카스트 제도의 제일 하층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나라만의 독자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대응책의 하나로, 인도네시아에는 몇 개의 페트병 쓰레기와 노선버스 승차권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토의도 있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유엔 해비타트는 앞으로도 각국 매스미디어와 협력하여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초빙 기자 프레젠테이션



패널 토론



★ 회원 도시 담당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의 토픽, 신규사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보내주세요.
(뉴스레터는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회원 도시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향후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회의 일정

개최시기	회의명	개최도시
2020 년	제 13 회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후쿠오카시 (일본)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Asian-Pacific City Summit)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회의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도시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회원도시 (13 개국 30 개 도시)

오클랜드 시(뉴질랜드)	가고시마 시(일본)
방콕도(타이 왕국)	기타큐슈 시(일본)
브리즈번 시(오스트레일리아)	쿠알라룸푸르 시(말레이시아)
부산 광역시(대한민국)	구마모토 시(일본)
창사 시(중화인민공화국)	마닐라 시(필리핀 공화국)
다렌 시(중화인민공화국)	미야자키 시(일본)
후쿠오카 시(일본)	나가사키 시(일본)
광저우 시(중화인민공화국)	나하 시(일본)
광양 시(대한민국)	오이타 시(일본)
호치민 시(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포항 시 (대한민국)
홍콩특별행정구(중화인민공화국)	사가 시(일본)
호놀룰루 시(USA)	상하이 시(중화인민공화국)
이포 시(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화국
자카르타 특별시(인도네시아 공화국)	우루무치 시(중화인민공화국)
제주 특별자치도(대한민국)	블라디보스톡 시(러시아 연방)

【편집·발행】 2019년 2월 6일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사무국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810-8620 후쿠오카 시 주오 구 덴진 1-8-1

TEL: 092-711-4028 FAX: 092-733-5597

E-mail: apcs@city.fukuoka.lg.jp Website: <http://apcs.city.fukuoka.lg.jp/han/>